

大巡眞理會의 宗旨에 관한 研究

曹泰龍*

目次

I. 서론	4) 도통진경
II. 종지의 기본개념	III. 종지의 사상적 의의
1. 종지의 개요	1. 연원적 진리체계
2. 종지의 내용	2. 실천적 수행체계
1) 음양합덕	3. 완성적 의의
2) 신인조화	IV. 결론
3) 해원상생	

I. 序論

흔히 대순진리(大巡眞理)는 지금도 들어 본 적이 없고 옛적에도 들어 본 적이 없는 금불문 고불문(今不聞古不聞)의 도(道)라고 표현된다. 이 말은 대순진리가 기존의 어떤 종교나 철학과도 구별되는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순진리는 기존의 어떤 성현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진리이기 때문에 옛적이나 지금에도 들어 본 적이 없는 도(道)라는 것이다.

선천의 수많은 성현들, 즉 신성·불·보살들이 구세제민(救世濟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교화하여 가르침을 펼치지만 선천세상은 결국 진멸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신성·불·보살들은 이러한 겁역을 해결하고자 구천에 계신 상제께 호소함으로써 상제께서 인세(人世)에 강세하시어

*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장

천지공사를 행하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상제께서 열으신 천지대도(天地大道)인 대순진리는 성현들의 가르침이란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이렇게 고금의 성현들도 감히 이해하기 어려운 금불문 고불문의 대순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한 닦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성현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순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수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다행히도 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를 조정산(趙鼎山) 도주께서 봉천명(奉天命)하시고 감오득도(感悟得道)하시어 우리들에게 그 대강(大綱)을 밝히셨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인 수도의 법방까지 내려 주셨으니, 이로써 인간을 비롯한 천·지·인 삼계(三界)가 능히 구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상제께서 대순하신 유지(遺志)의 대강(大綱)을 도주께서 대순진리회의 종지(宗旨)로서 밝힌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에 대하여 그 기본적 개념과 그에 따른 사상적 의의(意義)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宗旨의 基本概念

1. 宗旨(宗旨)의 개요(概要)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행한 천지공사는 상제께서 신성·불·보살의 호소에 의하여 진멸지경에 이른 천·지·인 삼계(三界)를 둘러 보시고 진단하여 내린 처방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상제께서 행하신 진단과 처방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흐름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병세문(病勢文)에 나타난 내용이며, 둘째는 종도 김형렬이 공식적으로 상제님을 추종하기 시작한 임인(1902)년 4월¹⁾에 말씀하신 삼계공사(三界公事)에 대한 내용이다²⁾.

-
- 1) 김형렬이 상제님과 인연을 맺은 것은 1894년에 상제께서 금구 내주평에 글방을 열었을 때이지만 종도로서 추종하게 된 것은 1902년서부터이다.
 - 2) 이 밖에도 선천세상이 진멸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하여 이마두가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은 문명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

병세문은 상제께서 화천하신 후 거처하시던 방에서 물이 들어있는 흰 병과 작은 칼이 발견되었는데, 그 흰 병의 병마개로 쓰인 종이에 적힌 글을 가리킨다³⁾. 여기에는 이 세상이 병든 것에 대한 원인을 세상에 도(道)가 없어졌다는 의미의 ‘무도(無道)함’으로써 파악하고 그 무도(無道)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세상에 충·효·열이 없어진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진단에 대한 처방전으로 상제께서는 안심(安心)·안신(安身), 대인대의(大仁大義) 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도(道)를 얻게되면 큰 병도 작은 병도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낫게 된다’⁴⁾라고 표현하였다.

병세문의 진단과 처방과는 달리 상제께서 김형렬에게 말씀하신 삼계공사의 내용은 보다 광범위하면서도 근본적이고 분석적이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 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⁵⁾

여기에는 천·지·인 삼계에 대한 상제님의 진단과 처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상제께서는 그 당시 시대적 정황(情況)을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라고 표현하시고 그 직접적인 원인을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災禍)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게 된 것은 원한이 삼계(三界)를 채웠기 때문이며 그 원한은 인간 사물이 상극에 지배되는 선천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던

(『전경』, 교운, 1장, 9절 참조). 그러나 병세문의 설명은 인간에 대한 진단이고, 이마두가 일으킨 문명에 원인을 둔 진단은 신명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비해, 삼계공사에 대한 설명에서 나타나는 진단과 처방은 인간과 신명을 포함한 천·지·인 삼계(三界)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볼 때, 이를 상제님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주된 핵심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전경』, 행록, 5장, 38절

4) 『전경』, 행록, 5장, 38절 ; 得其有道 則大病勿藥自效 小病勿藥自效

5) 『전경』, 공사, 1장, 3절

것이다.

진멸지경에 이른 선천세상에 대한 상제님의 진단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선천의 상극구조 → 원한이 쌓이고 맺힘 →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음
→ 재화(災禍)발생 → 세상이 참혹해짐

천·지·인 삼계(三界)를 광구(匡救)하고자 하신 상제님의 처방은 이 진단에 기초를 두고 내려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우선 참혹해진 세상을 구제하려면 재화(災禍)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나 그 재화는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었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먼저 천지의 어그러진 상도(常道)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천지의 상도(常道)는 삼계에 쌓이고 맺힌 원한 때문에 어그러졌으므로 아무리 상도(常道)를 바로 잡아도 근본적인 원한을 해소하지 않으면 또 다시 천지의 상도(常道)는 비틀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도(常道)가 어그러진 원인인 삼계에 가득찬 원한을 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선천세상의 원한은 선천세상에 근본적으로 내재하는 상극구조 때문에 발생한다. 때문에 아무리 원한을 해소하여도 상극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원한이 다시 발생하게 되므로 제일 먼저 선천세상의 상극구조를 조정하는 처방이 필요하다.

결국 참혹해진 세상을 광구하려면 제일 먼저 선천의 상극구조를 해결하는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 후 만고의 쌓이고 맺힌 원한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 원한은 신명을 조화하여 먼저 신도(神道)로부터 푸는 방법으로써 행해야 하며, 그럴 때 그것이 기틀이 되어(구조조정 과정으로 보아야 함) 인사(人事)가 저절로 이룩되는 것이다.

이렇게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만고의 원한이 해소될 때 세상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상생의 도가 이룩되는 것이며, 이 상생(相生)의 도로써 후천의 선경(仙境)이 건설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제께서 천·지·인 삼계를 진단하시고 구제하고자 하신 삼계공사(三界公事)라는 처방전의 내용이다. 그 처방의 내용을 알기 쉽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천지의 도수정리 → 신명조화(이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도 이룩됨) → 만고의 원한을 풀고 → 상생의 도가 이룩됨 → 상생의 도로써 후천선경이 이룩됨

이상(以上)의 삼계공사의 진단과 처방내용이 정확하게 그 요지(要旨)가 압축되어 표현된 것이 바로 대순진리회의 종지(宗旨)인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이다.

인간 사물이 상극에 지배된 선천 우주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는 일을 음양합덕(陰陽合德)으로 볼 수 있으며, 먼저 도수를 균건히하여 신명을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되는 것을 신인조화(神人調化)로 표현한 것이다.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가 이룩되는 것이 해원상생(解冤相生)이요, 상생의 도로써 후천의 선경(仙境)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도통진경(道通眞境)이다.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종지는 구천상제의 계시로써 종통을 세우신 조정산(趙鼎山) 도주(道主)께서 1925년에 무극도를 창도하시고 상제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면서 그와 함께 정하신 것으로 이는 상제께서 행하신 삼계공사의 큰 뜻을 압축해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종지(宗旨)의 내용

1) 음양합덕(陰陽合德)

대순진리회의 종지(宗旨)가 상제께서 천·지·인 삼계(三界)를 광구하고자 행하신 삼계공사(三界公事)의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면, 종지(宗旨)의 개별적 항목인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내용 역시 이러한 삼계공사의 맥락에서 살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제께서 말씀하신 삼계공사의 내용 중,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있는 선천세상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는 것’을 음양합덕의 주된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음양합덕이 가지는 의미는 우주론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원래부터 동양적 사고에서는 ‘음양(陰陽)’이라는 용어가 우주의 근본원리

를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⁶⁾. 『주역』에서는 ‘한번 음(陰)하면 한번 양(陽)하는 것이 도(道)다’⁷⁾라고 하여 음양을 천지자연의 근본원리로서 파악하였고 송나라 때의 학자인 주돈이(周敦頤 : 1017 ~ 1073)는 천지만물의 궁극적인 근원자를 ‘무극(無極)이면서 태극(太極)’으로 보고 태극이 동(動)하여 양(陽)을 생하고, 그 동(動)함이 극(極)에 달하면 정(靜)해지고 정(靜)하여 음(陰)이 생긴다⁸⁾라고 하여 천지만물의 근원자인 태극의 변화원리로서 음양을 파악하였다. 그는 음양이 변합(變合)하여 수화목금토의 오행(五行)이 생기고 오행의 기(氣)가 순포(順布)하여 사계절이 운행되고 만물이 생긴다고 생각하였다.

대순진리에서도 음양(陰陽)을 천지만물의 근원인 도(道)로써 파악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 이론적 근거로써 『대순지침』에서는 음양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도(道)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곧 경위며 경위가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⁹⁾

그러나 대순진리에서 말하는 음양(陰陽)은 동양사상에서 표현되는 음양의 사상적 의미를 내포하면서도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 『주역』이나 『태극도설』에서는 음양을 다분히 우주의 근원인 태극이 움직이고 멈춰지는 ‘운동원리’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 데 비해, 대순진리에서는 음양이 단순한 운동원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음양자체가 우주의 근원인 도(道)¹⁰⁾로써 정의된다. 그것은 다시 운행원리 및 모든 천·지·인 삼계의 이치로써 표현되었을 뿐 아

6) 중국의 제자백가 중 한 파인 음양가에서는 음(陰)과 양(陽)이라는 우주의 양대 원리가 화합과 상호작용에 의하여 만물이 생성한다고 생각하였다.(金勝東編, 『道敎思想辭典』, 부산대학교출판부, 1996, 음양 참조)

7) 『周易』, 「繫辭傳」; 一陰一陽之謂道

8) 周敦頤, 「太極道說」;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9) 『대순지침』, p. 18

10) 대순진리에서 말하는 도(道)는 선천의 종교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도(道)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 선천의 많은 성현들이 말하는 도(道)는 선천우주의 근원이며 운행원리를 뜻하지만, 대순진리에서의 도는 선천 뿐만 아니라 선천보다 그 범위와 차원이 훨씬 높은 후천우주의 근원과 운행원리까지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주께서 ‘오도자 금불문 고불문지도야(吾道者今不聞古不聞之道也 : 나의 도는 지금이나 옛적이나 들어본 적이 없는 도이다)’라고 하신 것이다.

나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경위와 법으로도 그 의미가 전개되고 있다.

(1) 선천의 상극적 구조

대순진리에서 선천우주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진단은 한마디로 말해 ‘상극적 구조’라는 점이다. 그것은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라는 상제님의 말씀에서 명백하게 표현되고 있다.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있다는 선천의 상극구조는 그 원인과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선천우주의 이치를 역리(易理)로써 표현한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에서 근본적인 상극의 원리가 내재함을 알 수가 있고, 둘째 1년이 춘·하·추·동이라는 4계절의 변천과정을 겪는 것처럼 우주도 그러한 변천을 통해 발전한다는 우주사적인 관점에서 선천우주에는 필연적으로 억음존양(抑陰尊陽)이라는 윤도수적(閏度數的)인 요소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①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에 나타난 상극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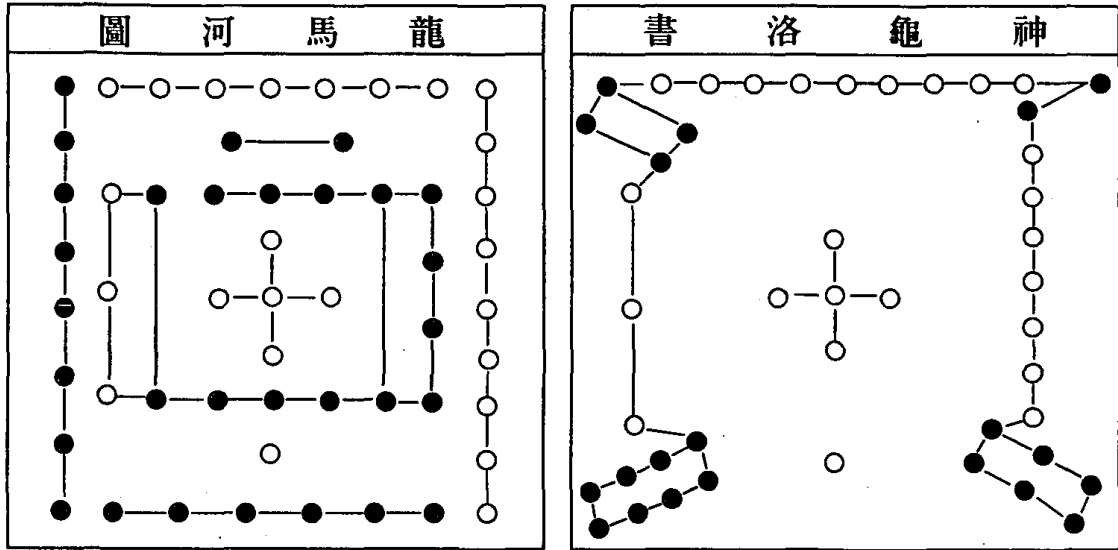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고 있다는 상제님의 말씀을 보다 분석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역리적(易理的)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대순지침』에 “천지의 이치가 일육수(一六水)에 근원하였으므로 선천(先天)의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의 역리(易理)가 모두 수중(水中)에서 표출된 것을 알 수 있다”¹¹⁾라는 구절이 있다. 이 표현에서 선천 우주의 이치가 하도와 낙서에 역리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선천의 상극원리를 역리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도와 낙서의 연구가 필수적일 것이다.

하도(河圖)와 낙서(洛書)는 주역과 홍범구주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수리철학의 기원이 여기서 시작된다. 하도(河圖)는 복희씨 때에 황하에서 출현한 용마(龍馬)의 등에 있는 그림을 말하며, 낙서(洛書)는 우(禹)임금 때에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낙수(洛水)에서 등에 짊어지고 나온 글을 가리킨다.¹²⁾ 하도

11) 『대순지침』, p. 14

12) 『大漢和辭典』, 河圖洛書 참조

와 낙서의 모양은 아래와 같다.



〈 하 도(河 圖) 〉

〈 낙 서(洛 書) 〉

『천기대요(天機大要)』에 의하면, 하도(河圖)에서는 1·6 수(水)가 북쪽에 있고 3·8 목(木)은 동쪽에, 5·10 토(土)는 중앙에, 2·7 화(火)는 남쪽에, 그리고 4·9금(金)은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의 천간이 여기에서 나온다. 복희씨가 이 하도를 보고 팔괘를 그렸고 황제(黃帝 : 헌원씨)가 이를 받아 육십갑자를 작성하니, 그 뒤의 성인들이 몸소 행하여 이를 후세에 전했다고 한다.

낙서의 형상은 9를 머리에 이고(남쪽) 1을 발로 밟고(북쪽) 왼 쪽에는 3이요(동쪽) 오른 쪽에는 7이 위치한다(서쪽). 그밖에 2, 4, 6, 8은 각기 남서, 남동, 북서, 북동에 자리잡고 있다. 천양수(天陽數)는 사정(四正)에, 지음수(地陰數)는 사유(四維)에 위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우씨(夏禹氏)가 이를 본받아 물과 흙을 평정하였고, 기자(箕子)는 이로 인하여 홍범구주를 작성하였다. 역대 제왕의 행정교화와 백성들의 생활이 이로 인하여 사용되니 그 변화가 무궁하다 하였다.¹³⁾

하도와 낙서는 선천 우주의 운행원리를 수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 그 첫째가 막힘(否)의 기운이 있다는

13) 林紹周(明), 『天機大要』(서울 : 명문당, 1995), pp. 2 ~ 3

것이며, 둘째는 불균형이요, 셋째로 상극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선 하도(河圖)를 살펴 보면, 복희씨가 이를 구체화한 복희팔괘에서 표현되었듯이 물(1,6水)은 아래에 있고 불(2, 7火)은 위에 있어 상극의 요소는 없지만 서로 융화되지 않고 제각기 분리되는 막힘(否)을 상징하고 있다.¹⁴⁾ 그리고 낙서(洛書)는 우선 위치하고 있는 수(數)와 방향이 상징하는 오행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낙서에서는 7이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쪽은 오행상으로 금(金)을 상징하는데 비해 7은 화(火)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낙서(洛書)에 나타난 오행상의 불일치는 후에 문왕이 그린 문왕팔괘에서 극심한 음양상의 불균형인 음양난잡의 궤상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낙서(洛書)에는 그 운행상 상극의 원리가 나타난다. 원래 하도와 낙서는 마치 맷돌의 두 짝처럼 하도는 왼 쪽으로 운행하는 좌선(左旋)으로, 낙서는 오른 쪽으로 도는 우전(右轉)으로 선천의 천지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수리학의 조종이다. 그런데 하도는 왼 쪽으로 돌아 오행이 서로 상생하며, 낙서는 오른 쪽으로 돌아 오행이 서로 상극하여 나타나고 있다.¹⁵⁾

이처럼 역리적으로 선천의 이치를 나타내고 있는 하도와 낙서로부터 선천 우주에서는 ‘막혀있음’과 ‘음양의 불균형’, 그리고 ‘상극적인 요소’가 근원적으로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억음존양(抑陰尊陽)의 상극적 요소

선천에서는 하도와 낙서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천지비괘(天地否卦)로 상징되는 막힘(否)의 기운과 오행이 서로 상극한다는 점, 그리고 음양의 불균형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음양이 고르지 못한 불균형적인 특성이 선

14) 물(水)이 아래에 있고 불(火)이 위에 있으면, 불은 위로 오르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특성이 있어 서로 융화하지 못하고 분리되는 형상이 된다. 이는 복희씨가 하도(河圖)를 보고 그렸다는 ‘복희팔괘’에서 하늘(乾)이 위에 있고 땅(坤)은 아래에 있어 궤상으로 ‘막혀있다’는 천지비괘(天地否卦)로써 상징되고 있다.

15) 戴源長編, 『仙學辭典』(臺北: 眞善美出版社), 河圖洛書; 河出圖, 洛出書, 八八六十四爲河圖之數, 九九八十一爲洛書之數, 左旋而五行生爲河圖, 右轉而五行剋爲洛書. 海蟾祖曰 “左旋右轉合樞機, 下降上升循穀軸(황하에서는 그림이 낙수에서는 글이 나왔다. 팔팔 육십사는 하도의 수리이고, 구구팔십일은 낙서의 수리이다. 왼 쪽으로 돌아 오행이 상생하는 것이 하도이고, 오른 쪽으로 돌아 오행이 상극하는 것이 낙서이다. 유해섬은 ”왼 쪽으로 돌고, 오른 쪽으로 돌아 서로 천지의 추기가 되고 하강상승하니 우주이치의 중심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천에서는 음(陰)보다 양(陽)이 큰 억음존양(抑陰尊陽)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선천세상은 우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윤도수적(閏度數的)인 운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¹⁶⁾.

이러한 억음존양의 형태는 우주의 생성발전과정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일년이 춘하추동의 사계절을 통하여 변천해 가듯이 우주도 크게 봄의 성격을 지닌 생(生), 여름의 성격을 지닌 장(長), 가을의 성격을 지닌 염(斂), 겨울의 성격을 지닌 장(藏)의 과정을 통해 변천해간다고 추론할 수 있다.¹⁷⁾ 그럴 때, 선천시대는 우주가 발생하여 성장해나가는 생장(生長)의 시대로 생각할 수 있다. 우주의 모든 사물이 태극의 기동작용에 기인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¹⁸⁾ 그 태극의 기동작용은 주역계의 『태극도설』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태극이 움직여서 양이 생기고 멈추면서 음이 생기는(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靜而生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럴 때 우주가 성장하는 선천의 시대에는 양(陽)이 음(陰)보다 커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이렇게 억음존양의 원리가 지배하는 선천세상에서는 천지자연이 양적으로는 팽창을 하나 질적으로는 성숙되지 못하는 성향을 가져온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천지만물의 개체수는 증가하나 명천(明天)은 노천(老天)으로 쇠락하게 되고, 후토(厚土) 역시 박토(薄土)로 퇴색하며, 인간 역시 덕(德)이 알팍해지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창생(蒼生)들은 어쩔 수 없이 생존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으며, 선천세상은 결국 힘있는 자가 살아남는 약육강식(弱肉強食)의 논리가 적용되는 응패의 시대가 되는 것이다.

선천세계에서는 이러한 상극의 원리라는 영향 속에서 하늘은 우로(雨露)를 박하게하여 만방의 원한이 있게되고 땅은 수토(水土)를 박하게하여 만물

16) 실질적으로 선천우주의 운행 중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 공전의 시간적 주기를 나타낸 것에서도 양력이 음력보다 큰 억음존양의 윤도수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17) 『전경』, 교법, 3장, 27절의 “나는 생·장·염·장(生長斂藏)의 사의(四義)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위이화나라”의 표현과 예시, 30절에서 앞으로의 개혁을 가을에 비유한 일, 그리고 ‘서신사명(西神司命)’이라는 전경구절에서 이와 같은 우주관을 추론해 볼 수 있다.

18) 여주도장 벽화에 모셔진 ‘대순진리회’라는 제목의 글에 “그러므로 이 우주(宇宙)의 모든 사물(事物) 곧 천지일월(天地日月)과 풍뢰우로(風雷雨露)와 군생만물(群生萬物)이 태극(太極)의 신묘(神妙)한 기동작용(機動作用)에 속하지 않음이 있으리요”라는 표현이 있다.

의 원한이 있게 되며, 사람은 덕화가 박하게 되어 만사의 원한이 있게 된다¹⁹⁾. 여기에 약육강식이라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희생당한 수많은 창생들의 원한까지 더해져 선천은 원한이 삼계에 가득히 쌓이고 맺힌 포원(抱冤)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상극(相克)에서 상생(相生)으로

대순진리회의 종지(宗旨)는 상제께서 행하신 삼계공사의 대의(大義)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음양합덕 역시 삼계공사의 커다란 맥락 속에서 선천의 상극에 지배된 우주구조를 조정하는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은 전술(前述)한 바 있다.

그런데 선천세상의 구조적 문제점은 첫째가 하도(혹은 복희팔괘)에서 표현된 ‘막힘’의 문제, 둘째 낙서(혹은 문왕팔괘)에서 설명되는 억음존양으로 상징되는 음양의 불균형, 셋째 낙서에서 나타난 오행의 상극문제 등이다. 이러한 선천의 구조적 문제를 천·지·인 삼계(三界)의 대권을 주재하신 상제의 권능으로 구조 자체를 조정, 정리하는 모습을 천지공사의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하도에서 표현된 막힘의 기운을 해결하는 점을 찾을 수 있다. 하도에서는 1·6 수(水)가 아래에 있고 2·7 화(火)가 위에 있어 그것이 복희팔괘에서는 막혀있음을 상징하는 천지비괘(天地否卦)로 표현되는데, 대순진리에서는 그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도(道)의 근원을 밝혀 놓았다는 금산사의 미륵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순지침』의

금산사도 진표율사가 용추(용소)를 솥으로 메우고 솥을 올려 놓은 위에 미륵불을 봉안한 것은 증산(甑山)·정산(鼎山)의 양산의 진리를 암시하여 도의 근원을 밝혀 놓은 것이다.²⁰⁾

라는 구절에서 불을 상징하는 솥 위에 솥 속의 물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도(河圖)에서 보이는 불과 불의 위치가 역(逆)으로 자리잡고 있

19) 『전경』, 행록, 3장, 44절 ; 天用雨露之薄則必有萬方之怨 地用水土之薄則必有萬物之怨 人用德化之薄則必有萬事之怨

20) 『대순지침』, p. 15

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 중간의 솔이 있기 때문이며, 그 솔 때문에 불 위에 물이 존재할 수가 있다. 이러한 관계는 복희팔괘에서 표현된 천지비괘(天地否卦)라는 선천의 막혀있는 기운이 지천태괘(地天泰卦)라는, 열려있으며 수화(水火)가 상생하는 구조로의 조정을 뜻한다.²¹⁾

둘째, 선천에서의 억음존양이라는 윤도수적 불균형을 만도수적인 정음정양으로 완성하는 점을 볼 수 있다. 이는 상제께서 1907년에 행하신 후천에서의 음양도수를 조정하시는 공사에서 한 점을 짚고 “건곤(乾坤)이 있을 때 름이오 이곤(二坤)이 있을 수 없사오니 일음 일양이 원리인 줄 아나이다”고 아뢴 문공신에게 ‘정음정양의 도수’를 붙이신 데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²²⁾. 그 뿐 아니라 조정산(趙鼎山) 도주께서 탄강하신 12월 4일 또한 수리적으로 우주운회에서 양(陽)이 음(陰)보다 커서 생기는 윤도수를 완성하는 1년 운회의 만도적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는 『대순지침』의 표현에서도 그 원리를 유추할 수 있다²³⁾.

셋째로 상제께서는 낙서(洛書)가 오른 쪽으로 운회함으로써 생기는 오행상극의 원리를 해결하는 공사를 행하셨다. 1908년 4월에 전주에서 여러 종도들에게 글을 정서하게 하셨는데, 그 글중에 상제께서 낙서(洛書)에 나타난 수(數) 위에 좌선(左旋)이라고 쓰신 기록이 있다²⁴⁾. 이는 낙서(洛書)가 오른 쪽으로 도는 우전(右轉)의 운행원리에서 발생하는 오행상극의 도수를 좌선으로하여 상생으로 바꾸는 공사로 이해된다.

이렇게 음양합덕(陰陽合德)은 상제께서 행하신 삼계공사의 중요한 특성으로, 선천의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이치를 말한다. 천지비괘(天地否卦)의 막혀있는 기운을 지천태(地天泰)의 열린 기운으로, 음보다 양이 더 커서 생기는 억음존양의 도수를 음과 양

21) 대순진리회교무부, 『체지가』, pp. 18~19에도 “선천팔괘 회역인데 천지비괘 되었어라 … … 선천운이 지나가고 후천운이 돌아온다 인존시대 되었으니 주역이 정역된다 지천태괘 되었으니 금신사명 하실적에”라고 하여 이같은 구조조정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22) 『전경』, 공사, 2장, 16절 참조

23) 『대순지침』, p. 13에 “도주님께서 진주(眞主 : 15세)로 봉천명(奉天命)하시고 23세시에 득도하심은 태을주(太乙呪)로 본령합리(本領合理)를 이룬 것이며 전경에 12월 26일 재생신(再生身)은 12월 4일로서 1년 운회의 만도(滿度)를 채우실 도주님의 탄생을 뜻하심이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24) 『전경』, 교운, 1장, 44절 참조

이 모두 완성되어 균형이 맞게 조화를 이루는 정음정양의 도수로, 상극의 원리를 상생으로 바꾸어 ‘음양이 합덕하는’ 도수로 정리·조정하는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2) 신인조화(神人調化)

신인조화(神人調化)는 그 기본 개념이 음양합덕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상제께서 전주 이치안의 집에서 쓰신 글중에 나타나는 ‘인위양 신위음(人爲陽 神爲陰 : 사람은 양이고 신은 음이다)’의 표현²⁵⁾과 음양경(陰陽經)에 있는 ‘신음인양(神陰人陽)’의 글귀에서 보이듯이, 대순진리에서는 신과 인간을 음과 양이라는 개념의 범주 속에서 파악한다는 점에 근거를 둔 것이다.

결국 선천에서는 음과 양이 고르지 못한 채 상극지리(相克之理)에 지배되어 왔다면, 음과 양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신과 인간 역시 그러한 상극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즉 선천의 상극지리(相克之理)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현상대로, 하도(河圖)에서 보이는 막혀있는 비(否)의 기운이 신명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신명과 창생은 비겁(否劫)에 빠지게 된 것이다²⁶⁾. 음양이 서로 고르지 못하고 상극의 원리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명부는 착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마두가 문명신을 이끌고 가서 서양에 문운(文運)을 일으킨 것이 오히려 물질에 치우치고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결과²⁷⁾를 초래한 것도 모두 선천의 구조적인 상극원리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명과 인간과의 관계가 선천의 근본적인 상극의 원리로부터 발생한 음과 양의 문제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면, 상제께서 행하신 ‘도수조정’에 의해 음과 양이 합덕하는 원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신명과 인간도 그에 따라 조화(調化)하는 관계로 새롭게 설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한 음양합덕의 공사에 따라 신명과 인간이 조화(調化)하는 신인조화(神人調化)는

25) 『전경』, 제생, 43절

26) 선천에서의 신명과 창생이 비겁에 빠져 있다는 표현은 「전경」, 공사, 1장, 1절과 예시, 10절, 그리고 「포덕교화기본원리」, p. 5 등에 잘 나타나 있다.

27) 『전경』, 교운, 1장, 9절 참조

전술한 선천의 상극구조를 상생으로 조정·정리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것 역시 음양합덕과 같이 세가지 형태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로 상제께서 삼계공사를 통하여 천지비괘(天地否卦)로 표현되는 선천의 막혀 있는 기운을 지천태괘(地天泰卦)라는 후천의 열려 있는 기운으로 구조조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비겁에 빠진 신명과 창생도 조화되어 구제된다. 그와 같은 사실은 『전경』의

시속에 말하는 개벽장은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는 개벽장을 말함이니라²⁸⁾.

상제께서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은 명부의 착란에 있으므로 명부에서의 상극도수를 뜯어고치셨도다. 이로써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되었으니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²⁹⁾

라는 표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상제께서 억음존양이라는 선천의 고르지 못한 음양도수를 후천의 정음정양으로 완성하는 공사를 행하셨으므로, 음(陰)인 신명과 양(陽)인 인간도 선천의 불완전한 속성을 극복하고 완성된 모습으로 거듭 날 수가 있다. 그에 따라 신명은 조화되어 만고에 쌓인 원한이 해소되며³⁰⁾, 명부의 착란도 바로 잡히게 된다. 이렇게 신도(神道)로부터 원을 풀어 도수가 굳건해지도록 조화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人事)도 저절로 이룩되는 것이다.

셋째, 상제께서 낙서(洛書)의 운행을 바꾸거나 수극화(水克火)의 상극구조를 수생어화(水生於火)로 조정하여 상극의 원리를 해소하는³¹⁾ 공사를 행하십시오으로써 음(陰)의 성격을 가진 신명과 양(陽)의 성격을 가진 인간도 서로 상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상제께서는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 속에 드나들게하여 다 고쳐 쓰시니³²⁾, 신명과 인간이 서로 상합하고

28) 『전경』, 공사, 1장, 1절

29) 『전경』, 예시, 10절

30) 『전경』, 예시, 9절의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의 구절에서 잘 나타나 있다.

31) 상제께서 1909년 1월에 쓰신 「현무경」에 ‘水火金木待時以成 水生於火 故天下無相克之理(수화금목이 때가 되어 이루어지고 물에서 불이 생기니 천하에 상극의 원리가 없게된다)’라는 구절에서 이러한 이치를 알 수 있다.

32) 『전경』, 교법, 3장, 1절에 “상제께서 「나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 속에 드나들게하여 다 고쳐 쓰리라. 그러므로

변화하게 되어³³⁾ 지상신선(地上神仙)이 실현된다.

이와 같이 상제께서 선천의 근본적인 상극구조를 뜯어고치는 ‘음양합덕(陰陽合德)’의 공사를 행함에 따라 음(陰)의 성격을 지닌 신명과 양(陽)의 성격을 지닌 인간도 같은 원리에 따라 조화(調化)를 이루는 것이 신인조화(神人調化)의 기본개념이다. 그러나 음양합덕이 우주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적 측면에서 설명되는 개념이라 한다면, 신인조화는 신명과 인간이 우주에 존재하는 인격적 혹은 신격적 개성을 가진 개체라는 점에서 보다 생동적이고 구체적인 성격을 지닌다. 본고(本稿)에서는 그러한 생동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에서 신인조화가 지니는 다양성의 측면을 크게 대별하여, 구조적 기틀로서의 도수조정과 인존시대의 도래를 가져오는 지상신선실현이라는 논제로써 설명하고자 한다.

(1) 구조적 기틀로서의 도수조정

신인조화(神人調化)를 구조적 기틀로서의 도수조정적 측면과 신명과 인간이 상합하여 변화하는 지상신선실현이라는 측면으로 고찰하기에 앞서 상제께서 말씀하신 ‘삼계공사’ 속에서 신인조화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삼계공사에 나타난 신인조화에는 도수조정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³⁴⁾

나는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를 쓰리니 이는 비록 초목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게 되는 연고이니라」 말씀하셨도다”라고 하여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33) 신명과 인간이 서로 상합하여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경」, 제생, 43절에 나와 있는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인간은 양이고 신명은 음이다. 음양이 상합한 연후에 변화하는 이치가 있다)”라는 구절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상제께서 오셔서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선경을 열어 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35)

이상이 삼계공사에 대해 상제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것들이다. 여기에는 물론 신인조화(神人調化)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나 당연히 신인조화의 내용으로 이해되는 구절들이 있다. 그것은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와 ‘도수를 굳건히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 그리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라는 말씀 등이다.

신인조화(神人調化)의 내용을 뜻하는 이러한 구절에서 신인조화가 지니고 있는 대순진리적 목적성과 그 방법론을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신인조화가 현재 존재하는 원한만을 푸는 것이 아니라 만고로부터 누적된 원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해지는 원리라는 것이다. 또한 신인조화는 신명계의 원한을 풀어 조화함으로써 그것이 기쁨이 되어 인간사도 저절로 해결되는 ‘무위이화(無爲而化)’ 차원의 구조조정적 방법으로 행해진다는 점이다³⁶⁾

이러한 원리로 상제께서는 먼저 신명을 조화하여 선천의 맺히고 쌓인 원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공사를 행하셨다. “명부의 착란에 따라 온 세상이 착란하였으니 명부공사가 종결되면 온 세상 일이 해결되느니라”라고 하며 “하룻밤 사이에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고 하셨다³⁷⁾.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원한의 시초가 되는 단주(丹朱)의 해원공사를 행하였다.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³⁸⁾”고 말씀하였던 것이다. 그 외에도 아표신(餓飢神)을 천상에 몰아 올리는 공사를 행하심으로 백성이

34) 『전경』, 공사, 1장, 3절

35) 『전경』, 예시, 9절

36) 이렇게 신도(神道)로부터 일을 무위이화로 해결하는 천지공사의 방법론은 『전경』, 예시, 73절의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드는 대로 새 기쁨이 열리리라.”는 상제님의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37) 『전경』, 공사, 1장, 5절, 7절 참조

38) 『전경』, 공사, 3장, 4절

기근으로 죽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³⁹⁾, 황천신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먹고 왔기에 원한이 쌓인 중천신에게 복을 주시는 공사, 그리고 만고 역신들을 시비와 상극이 없는 성수(星宿)로 보내는 공사 등을 행하였다.

(2) 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

신인조화(神人調化)는 신도(神道)로부터 원을 푸는 방법으로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함으로써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人事)도 무위이화로 저절로 조화되는 삼계공사의 기틀조정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신인조화는 신명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완성을 이루는 ‘지상신선실현’이라는 특별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

신명과 인간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 인간과 신명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창구가 된다는 내용은 다음의 전경 구절에서 잘 표현되어 있다.

마음이란 것은 귀신의 추기(樞機)이며 문호(門戶)요 도로(道路)이다. 그 추기를 열고 닫으며, 문호를 출입하고, 도로를 왕래하는 존재가 바로 신(神)인데 그 신(神)에는 좋은 신(神)도 있고 나쁜 신(神)도 있다. 좋은 신(神)은 그를 스승으로 삼고, 나쁜 신(神)은 바로 고쳐야 한다. 내 마음의 추기, 문호, 도로는 천지보다 크다.⁴⁰⁾

이렇게 마음이라는 창구(窓口)를 통하여 인간과 신명이 상호작용해 왔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인류와 신명이 존재했을 때부터 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행하신 후부터는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갖는다. 선천에서는 신명(神明)을 하늘에 봉하는 신봉어천(神封於天)의 ‘천존시대(天尊時代)’와 신명을 땅에 봉하는 신봉어지(神封於地)의 ‘지존시대(地尊時代)’였지만 이제부터의 세상은 신명을 인간에게 봉하는 신봉어인(神封於人)의 ‘인존시대(人尊時代)’가 도래하기 때문이다⁴¹⁾.

인존시대에서는 신명과 인간이 이전의 천존시대와 지존시대와는 달리 보

39) 『전경』, 권지, 1장, 8절 참조

40) 『전경』, 행록, 3장, 44절 ; 心也者鬼神之樞機門戶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或有善或有惡 善者師之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

41) 『전경』, 교법, 2장, 56절 참조

다 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상제께서 행하신 삼계공사의 도수조정적 원리인 음양합덕(陰陽合德)에 따라 음(陰)에 해당하는 신명과 양(陽)에 해당하는 인간이 조화(調化)를 이루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명은 사람이 없으면 의지하여 부탁할 곳이 없게 되고, 인간은 신명이 없으면 의지하여 안내할 존재가 없게된다. 신명과 인간이 화합(和合)을 이루어야 만가지 일과 백가지 공(工)이 성취되는 것이요, 이를 위해서 신명과 인간은 서로를 기다린다. 그리하여 음양상합에 따라 신명과 인간이 상통하게 되며 그 후에 천도(天道)와 지도(地道)가 이루어지고 신명과 인간의 모든 일이 완성되는 것이다⁴²⁾.

이 때에 상제께서는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가슴 속에 드나들게하여 비록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다 고쳐 쓰시니⁴³⁾, 이로써 인간은 각기 닦은 바에 따라 마음이 밝아져 도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⁴⁴⁾. 이것이 바로 신명을 인간에게 봉(封)하게 되는 인존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며, 인간이 신선으로 화하는 지상신선의 실현이다.

3) 해원상생(解冤相生)

상제께서 천·지·인 삼계(三界)를 광구하고자 행하신 삼계공사(三界公事)의 대지(大旨)가 바로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종지로서 표현되었다면, 그 중에서도 해원상생은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비록 종지(宗旨)의 항목이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용면에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해원상생은 음양합덕, 신인조화와 도통진경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음양합덕과 신인조화는 보다 완벽한 해원(解冤)과 상생(相生)의 도(道)를 실현하기 위한 도수조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도통진경 역

42) 『전경』, 교운, 2장, 42절의 음양경(陰陽經)에 ‘… 神人以陰陽成造化 … … 神無人後無托而所依 人無神前無導而所依 神人和而萬事成 神人合而百工成 神明事人 人事神明 陰陽相合 神人相通 然後 天道成而地道成 神事成而人事成 人事成而神事成’의 표현이 나온다.

43) 『전경』, 교법, 3장, 1절과 예시, 7절 참조

44) 『전경』, 교운, 1장, 33절과 34절 참조

시 해원상생이 완벽하게 실현된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성·불·보살들이 구천에 계신 상제께 호소하게 된 것이 ‘비겁(否劫)에 쌓인 신명과 재겁(災劫)에 빠진 인간’ 때문이다. 비겁(否劫)은 선천에 인간 사물이 상극에 지배되어 발생하게 된 원한 때문에 생긴 것이며 재겁(災劫) 역시 그렇게 발생한 원한으로 인하여 천지가 일상적으로 운행하던 상도(常道)를 잃게 되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그런데 그 원한을 해소하여도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밖에 되지 않기에 상제께서는 근본적인 상극의 구조를 뜯어고치는 차원에서의 완전한 해원(解冤)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근본구조까지 상생의 구조로 조정된 상태에서의 해원이 바로 해원상생이다. 그 해원상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인간과 신명은 서로 완성이 되어 인존시대(人尊時代)가 실현되고, 하늘과 땅도 개벽되어 지상선경(地上仙境)이 건설되는 것이다.

해원상생(解冤相生)은 이처럼 범위가 크고 내용이 심오한 것으로, 종지의 다른 항목인 음양합덕, 신인조화, 도통진경의 내용까지 망라한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선천의 천·지·인 삼계(三界)를 광구(匡救)하여 개벽(開闢)함으로써 새로운 후천선경을 건설하시는 개벽장인 상제께서는 스스로를 천하의 모든 원한을 푸는 ‘천하 일등 재인’이라 칭하신 것이다⁴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원상생(解冤相生)은 ‘해원(解冤)’이라는 개념과 ‘상생(相生)’이라는 개념이 서로 합성된 내용을 지니고 있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해원(解冤)이 바로 상생(相生)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천의 근본적인 상극의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해원을 시켜도 또 다른 원한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해원(解冤) 중에는 단순히 욕망을 이루지 못해서 생긴 원한을 발산해 버리는 차원의 해원(解冤)도 있다. 이런 해원(解冤)은 오히려 세상의 난법(亂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상생(相生)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해원(解冤)의 여러 가지 종류와 그 의미를 살핀 다음, 상생의 도와 결합된 진정한 의미의 해원상생(解冤相生)에 대하여

45) 상제께서 하루는 무당도수라 하시며, ... 「이것이 천지(天地) 곳이니라」 하시고 「너는 천하 일등 무당이요 나는 천하 일등 재인이라 이당 저당 다 버리고 무당의 집에서 빌어야 살리라」 고 하셨도다. (『전경』, 공사, 3장, 33절)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해원(解冤)의 종류와 그 의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원(解冤)에도 상생(相生)으로 연결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대체로 원한이 맺히게 되었던 동기가 윤리 도덕적으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원이 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서 후천에 해원이 되는 것도 있으며 선천에서 해원 되는 것도 있다. 그 밖에도 해원을 하는 주체가 신명이나 인간이 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그 밖의 다른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해원(解冤)은 그 동기, 시기, 주체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 사상적 의미가 서로 다르다. 그렇다면 먼저 해원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선천인가 후천인가에 따라 선천해원과 후천해원으로 구별해 보고, 해원을 하는 주체가 신명과 인간인가 아니면 그 밖의 다른 존재인가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의미를 고찰해 보자.

① 선천해원과 후천해원

우선 해원(解冤)은 해원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서 선천해원과 후천해원⁴⁶⁾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원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선천인가 아니면 후천인가의 문제는 대체로 각각의 해원이 도덕적으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 또한 그것은 난법과 진법이라는 수도상의 차원과도 관련이 된다.

상제께서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고 박공우에게 말씀하시니라⁴⁷⁾

46) 선천해원이란 용어는 「전경」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후천해원’이라는 표현은 상제께서 1901년 대원사에서 불음불식 공부를 마치시고 방에서 나오시자, 대원사 골짜기에 많은 새와 짐승이 모여들며 무엇을 애원하는 듯 하니 상제께서 “너희 무리들도 후천해원을 구하려함인가”라고 말씀하신 데서(「전경」, 행록, 2장, 15절)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47) 『전경』, 공사, 1장, 32절

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기기가 어려우리라.48)

위의 두가지 상제님의 말씀에 나타난 해원(解冤)에는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행하시던 1900년대 초에 상제께서는 그 시대부터 '이제는 해원시대'라고 선언하셨다는 점이다. 상제께서는 만고로부터 쌓인 원한 때문에 신명은 비겁(否劫)에 빠지고 인간은 재겁(災劫)에 쌓여 세상이 참혹하게 변하였다고 진단하고 세상의 모든 원한을 푸는 삼계공사를 행하였다. 그런데 상제께서 행하신 해원공사의 대상이 되는 원(冤)은 긍정적인 욕망에서 발생한 것도 있고 부정적인 욕망에서 기인한 것도 있는데, 상제께서 선포하신 해원시대에는 이 모든 원(冤)이 해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위의 표현에서 나타나 있는 해원의 대상인 원(冤)은 부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남녀의 분별을 띄워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해원시키셨으나 예법을 다시 세우신다는 표현과 대조가 된다. 그리고 욕망을 채우도록 풀어 놓으신 해원은 바로 난법과 연결된다. 이것은 사곡을 행하는 죄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이후에 지기(至氣)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는 응보(應報)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성격을 지닌 해원(解冤)은 그 특징이 후천의 운수가 오기 전에 해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남녀의 분별을 띄어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해원(解冤)은 상제께서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다. 또한 욕망을 채우지 못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린 원(冤)을 푸는 해원 역시 지기(至氣)가 대강(大降)하는 후천개벽 전에 행해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욕망을 푸는 해원을 하는 사람은 운수가 오기전에 목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

48) 『전경』, 교법, 3장, 24절

그러나 이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해원(解冤)도 있다.

나는 해마를 위주하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먼저 복마의 발동이 있으리
니 복마의 발동을 잘 견디어야 해원하리라고 타이르셨도다.⁴⁹⁾

여기서 말하는 해원은 상제님을 믿고 수도하면서 바라는 바 목적인 후천 운수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후천운수를 바라는 것은 그 욕망 자체가 긍정적인 것이며, 이러한 욕망이 달성되는 해원(解冤)은 운수가 왔을 때인 후천 세상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⁵⁰⁾.

비록 선천에서 해원이 이루어지는 선천해원이 모두 부정적인 욕망을 발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발산하는 식이 될 수 있으므로 난법(亂法)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후천해원을 바라는 창생은 이러한 난법을 조장하는 욕망의 발산이라는 해원(解冤)에 휘말려서는 안된다.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에 근원이 되며, 신명들이 마음에 먹줄을 겨누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고 있다는 상제님의 교훈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② 신명해원과 인간해원

해원(解冤)은 해원이 이루어지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신명해원과 인간해원 그리고 그 밖의 해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제께서 삼계공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던 중에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라던가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한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49) 『전경』, 교법, 2장, 15절

50)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해원 중에서도 그 해원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선천시 대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진묵이 천상에 올라가 묘법을 배워 인세에 베풀고자 하였으나 김봉곡에 의해 좌절됨으로써 생긴 원한을 상제께서 해원시켜 고국으로 데려와서 선경(仙境)건설에 역사케 하신 것(『전경』, 권지, 2장, 37절)과 중국이 오랑캐의 칭호를 받은 청(淸)에게 정복된 원한을 풀게 하신 일(『전경』, 공사, 3장, 18절)들은 긍정적인 원한이나 해원이 선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후천선경을 열어 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의 표현 등에서 해원공사 중에서 신명공사가 먼저 행해졌으며, 그것은 우주의 구조적 조정과도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고 하시면서 죽은지 사천년이 넘은 단주의 해원공사를 행하신 것이나 중천신 해원, 만고역신 해원, 전명숙이 사명기가 없어 포한(抱恨)하였다고 하시면서 해원하신 것⁵¹⁾ 등이 대표적인 신명해원 공사이다.

그런데 상제께서 행하신 신명해원의 공사에서 원(冤)이 가지는 속성을 짐작할 수가 있으니, 원한이란 것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소멸되지 않는 반영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천년 전에 요임금으로부터 천자의 제위를 순임금에게 빼앗겼다는 요임금의 아들 단주의 원한이 죽어서도 해소되지 않고 인류 역사에서 모든 원(冤)의 근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원(冤)이 지닌 반영구적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⁵²⁾.

이렇게 죽어서도 전혀 해소되지 않은 신명들의 원한은 그 영향력이 천·지·인 삼계(三界)에 미쳐⁵³⁾ 결국 천지의 일상적인 운행인 상도(常道)까지 어긋나게 한다. 이로 인하여 삼계는 서로 통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災禍)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제께서는 먼저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神道)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51) 『전경』, 공사, 3장, 2절 참조

52) 나중에 상제님의 의해 불교의 종장이 된 진묵도 그 원(冤)이 삼백년이 지난 후에야 조선에 와서 선경건설에 역사하게 됨으로써 해원된 것도 원한이 지닌 속성을 잘 나타낸다.

53) 상제께서 1909년에 들어서 매화(埋火)공사를 행하고 사십구일간 동남풍을 불게 하실 때 사십 팔일 되는 날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애원하기에 상제께서 공사에 전념하시는 중임으로 응하지 아니 하였더니 그 사람이 돌아가서 원망하였도다. 이로부터 동남풍이 멈추므로 상제께서 깨닫고 곧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위안케 하시니라. 이때 상제께서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기운이 막힌다」고 말씀하셨도다.(『전경』, 공사, 3장, 29절) 이 구절에서 원한이 지닌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원한이 대대로 수없이 쌓이고 맺혀 삼계가 참혹하게 변한 것이다.

원한을 풀어 조화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하신 것이다.

인간해원은 이렇게 신명을 해원하여 구조적 기쁨을 조정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공사이다. 먼저 상제께서는 빈천하고 어리석고 병든 자를 선택하여 상제님의 가르침을 전하도록 하셨으니⁵⁴⁾, 여기에는 인간들중에서 가장 원한이 많은 사람들을 먼저 해원시키고자 하신 큰 뜻이 담겨있다. 그 밖에 후천에서는 젊은 과부는 젊은 홀아비를, 늙은 과부는 늙은 홀아비를 각각 가려서 개가케 하신 공사, 촌양반과 읍내의 아전처럼 신분과 계급의 차이에서 오는 원한을 해소하시는 공사 등이 대표적인 인간해원공사이다.

한편 해원의 대상이 반드시 신명과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니 다음의 전경구절에서 해원의 대상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天用雨露之薄則必有萬方之怨
地用水土之薄則必有萬物之怨
人用德化之薄則必有萬事之怨⁵⁵⁾

이렇듯 원한을 품을 수 있는 대상은 신명과 인간을 넘어서서 모든 사물과 공간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해원공사는 마땅히 신명과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사물과 공간에게까지 확대된다. 상제께서 “이제 해원시대를 맞이 하였으니 사람도 명색이 없던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오리라”⁵⁶⁾라고 하신 것이나 도주께서 진업단을 구성하여 안면도와 원산도 두 섬에 간사지를 개척하여 토지해원공사를 행하신 것이 이에 해당한다.

54) 이는 상제께서 “부귀한 자는 빈천을 즐기지 않으며 강한 자는 약한 것을 즐기지 않으며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음을 즐기지 않으니 그러므로 빈천하고 병들고 어리석은 자가 곧 나의 사람이니라”(『전경』, 교법, 1장, 24절)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였으니 천한 사람에게 먼저 교를 전하리라”(『전경』, 교운, 1장, 32절) 고 하신 데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55) 『전경』, 행록, 3장, 44절 ; 하늘이 우로(雨露)를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반드시 만방에 원한이 생기게 되고, 땅이 물이 풍부하지 못하고 흙이 기름지지 못하면 반드시 만물의 원한이 생기게 되며, 사람이 덕화를 행하지 않으면 모든 일에 원한이 일어나게 된다.

56) 『전경』, 교법, 1장, 67절

(2) 상생(相生)의 도(道)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원상생(解冤相生)은 ‘해원(解冤)’과 ‘상생(相生)’이라는 개념이 서로 합성된 용어이다. 이 세상의 모든 원(冤)이 해원되었다고 하여 해원상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선천의 인간 사물을 지배하고 있는 상극의 원리를 상생으로 뜯어고쳤다고 해서 해원상생이 달성된 것은 아니다.

선천의 상극구조가 근본적으로 조정되어 상생의 도수로 전환된 상태에서 만고로부터 쌓인 신명의 원한과 인간들이 원한이 해원되고 그 밖의 모든 사물과 존재들의 원한이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해원상생이 실현된 것이다.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해원상생이 실현된 세상은 다름아닌 이 땅에 후천선경이 건설된 도통진경의 세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진정한 의미의 해원상생이 실현되기까지는 그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 먼저 상제께서 행하신 삼계공사의 차원에서 상극구조를 상생의 구조로 전환하는 음양합덕이라는 도수조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고로부터 쌓인 신명계의 원한을 해결하여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간사도 조화되는 신인조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완료되면 원시(原始)에 아무런 원한도 없이 가장 순조롭게 우주가 운행되던 그 상태로 이 세상은 반본(返本)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해원상생이 이 땅에 실현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인 인간의 차원에서는 원한을 푸는 과정에서 윤리도덕적으로 부정적인 욕망을 발산하는 해원도 거쳐야 한다.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발산하여 삼강오륜과 사회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해원도 이 땅에 펼쳐질 수밖에 없다⁵⁷⁾. 이런 혼란과정에서 난법

57) 대순진리회교무부편, 『채지가』, p. 12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욕망을 발산하는 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 괴이하다 괴이하다 금세풍속 괴이하다 삼강오륜 변타한들 이러하게 허무할까 이팔청춘 소년들아 허송세월 부디말라 과학인지 문학인지 저잘난체 웬일이고 하늘쓰고 도래드니 마음대로 뛰고놀고 효제충신 다버리고 신식개명 말을하네 똑똑하고 잘난체로 주제넘게 배웠는지 미신 타파 한다하고 천지신명 무시하네 저의부모 몰랐으니 남의부모 어이알며 저의선령 다버리고 남의조상 어이알리 더병머리 홀태바지 비틀거리 걷는양은 서양문명 이러한가 동양문명 이러한가 고래의관 보게되면 손질하고 욕을한다 고래위풍 전한법을 본보기는 고사하고 숙맥같고 미신같다 저이끼리 공론하네

이 펼쳐지고 진법은 그 후에 나오게 되므로 모든 일에 마음을 바로해야 진정한 해원상생의 길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일반사회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니 도인들의 세계에서도 부정적인 욕망을 발산하는 해원이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1894년에 발생했던 동학혁명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본래 동학은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주장하였음은 후천일을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않았으나 마음은 각기 왕후장상(王侯將相)을 바라다가 소원을 이룩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은 자가 수만명이라. 원한이 창천하였으니 그 신명을 그대로 두면 후천에는 역도(逆度)에 걸려 정사가 어지러워지겠으므로... ..이제부터 동학신명을 모두 경석에게 붙여보냈으니 이 자리로부터 왕후장상(王侯將相)의 해원이 되리라⁵⁸⁾

같이 동학혁명에 참여하였다 할지라도 전명숙과 같은 사람은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주려는 '남을 잘되게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에 비해 많은 사람들은 왕후장상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하고자 하는 욕망을 품었던 것이다. 해원시대를 당하여 이런 부정적인 욕망에서 발생한 원한도 개혁이 오기 전에 해원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해원에서 생기게 되는 교운(敎運)의 혼란, 즉 난법난도는 어느 한 편으로 볼 때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단지 후천의 운수를 바라는 사람은 진정한 해원상생의 도를 실천해야 하므로 해원시대를 당하여 오히려 덕을 닦고 사람을 올바르게 대우해야 한다⁵⁹⁾. 난법난도 속에서 도리어 신명이 마음에 임하여 먹줄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범사에 마음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4) 도통진경(道通眞境)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종지(宗旨) 중 네 번째인 도통진경(道通眞境)은 상제께서 행하신 삼계공사의 완성이자 결론적인 의의(意義)를 가지고 있다.

58) 『전경』, 공사, 2장, 19절

59) 상제께서는 여기에서 오히려 길성이 빛이 나며 이것이 피난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전경』, 교법, 2장, 20절 참조)

선천의 모든 인간 사물을 구조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극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음양합덕(陰陽合德)과 그러한 도수조정의 차원에서 신명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 무위이화로 해결되는 신인조화(神人調化)를 통하여 천·지·인 삼계(三界)에 맞히고 쌓인 모든 원한이 해원되어 상생의 도가 실현되는 해원상생(解冤相生)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이 세상은 개벽되어 후천의 선경(仙境)이 건설되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도통진경의 세계이다.

도통진경(道通眞境)은 대순진리를 수도해나가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심우도(尋牛圖)에 있는 도통진경과는 그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종지(宗旨)로서의 도통진경은 심우도의 도통진경이 가지는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심우도(尋牛圖)는 사람이 대순진리를 믿고 닦아가는 과정을 동자(童子)가 대순진리로 상징되는 흰 소를 찾아 가는 그림으로 비유하고 있다. 먼저 대순진리를 알기 이전의 과정인 '심심유오(深深有悟)', 두 번째는 대순진리를 알게 되는 '봉득신교(奉得神敎)', 세 번째는 대순진리를 힘써 닦아 나가는 '면이수지(勉而修之)', 네 번째는 항상 조밀하게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 하며 정성에 또 정성을 들이는 '성지우성(誠之又誠)', 다섯 번째는 이렇게 대순진리를 닦고 닦아 드디어 도가 곧 나요 내가 곧 도라는 경지를 정각(正覺)하고 일단 활연관통하여 삼계를 투명하고 삼라만상의 꼭진이해에 무소불능하게⁶⁰⁾ 되는 '도통진경(道通眞境)',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천지인 삼계가 모두 개벽되어 후천선경이 건설된 '도지통명(道之通明)'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듯 심우도에 나타나는 도통진경은 한 인간이 대순진리를 수도하여 도통을 이루고 후천선경에 참여하는 과정을 나타낸 다분히 미시적(微視的)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에 비해 종지로서의 도통진경은 상제께서 천·지·인 삼계를 광구하고자 행하신 삼계공사에 대한 내용으로서 심우도의 도통진경과 도지통명의 의미를 당연히 포함하면서 그 보다 훨씬 광범위한 거시적(巨視的)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도통진경은 대순진리를 수도하는 도인이 그 수도의 목적인 도통을 달성하

60)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p. 9 참조

는 의미를 넘어서서 모든 인간과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까지 완성을 이루며, 하늘과 땅까지 개벽되어 천지가 성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음의 상제님 말씀에서 잘 표현되어 있다.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⁶¹⁾

그러나 대순진리회가 목적하는 이러한 도통진경은 해원상생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에 실현되는 세상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개벽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는 바, 그것이 바로 병겁이라는 참상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완료하였을 때, 비로소 세상은 개벽되어 후천선경이 건설된다. 그런데 이 개벽은 특성상 '원시반본(原始返本)'의 의미를 지니고 이루어 진다. 그러므로 본고(本稿)에서는 도통진경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병겁'과 그 해결책인 '의통(醫統)'에 대해 먼저 살펴 본 다음 후천선경이 열리는 개벽이 지니고 있는 원시반본적인 특성을 알아 보고자 한다.

(1) 병겁(病劫)과 의통(醫統)

상제께서 선천의 진멸지경에 처한 천·지·인 삼계(三界)를 광구하고자,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여는 삼계공사(三界公事)를 행하셨다. 그러나 삼계에 가득 쌓이고 맺힌 원한을 푸는 과정이 그리 순탄하게만 진행되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동학혁명에서 왕후장상을 꿈꾸다 뜻을 이루지 못한 원(冤)을 해원시키는 과정에서 상제님 화천 후에 차경석을 비롯한 종도들에 의해 초장봉기처럼 교운(教運)을 어지럽히는 난법(亂法)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윤리도덕적으로 부정적인 욕망의 좌절에서 발생한 원한을 해소하는 선천해원의 결과가 상제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운(教運)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세상을 크게 어지럽게 하는 난법(亂法)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즉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막바지에는 그 동안 해원되지 않은 모든 원한이 한꺼번에 발산하

61) 『전경』, 예시, 30절

여 해원되어야 진정으로 원한이 한 점 남아 있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상생의 도가 실현되는 도통진경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그 원한의 발산에서 오는 재앙이 인류에게 밀어닥치는 참상 또한 피할 수가 없다.

상제께서는 비록 아표신을 천상으로 보내어 굶어 죽는 일은 없다 하셨지만⁶²⁾ 장정은 배를 채우지 못하여 배 고프다는 소리가 구천에 달하리라고 말씀하였다. 이 세상을 태워 버릴 수 있는 불을 묻는 매화공사(埋火公事)를 행하셨지만⁶³⁾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세를 당하여 어찌 전쟁이 없으리오”라고도 하였다⁶⁴⁾. 여기에서 선천의 모든 악업을 해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에 이르기 위해 인류가 겪어야만 할 관문으로서 그 어떤 어려움보다 가장 힘든 것은 선천개혁이라. 있어본 적이 없었던 재앙인 병겁(病劫)의 도래이다⁶⁵⁾.

인간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겁(災劫)인 병겁에 대하여 “이후에 괴병이 온 세상에 유행하리라. 자던 사람은 누운 자리에서 앉은 자는 그 자리에서 길을 가던 자는 노상에서 각기 일어나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고 혹은 엎어져 죽을 때가 있으리라”⁶⁶⁾라고 그 참상을 말하신 상제께서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통(醫統)’을 제시하였다.

62) 『전경』, 권지, 1장, 8절에 “내가 천지공사를 행하면서부터 일체의 아표신을 천상으로 몰아 올렸으니 이후에는 백성이 기근으로 죽는 일은 없으리라”라는 표현이 나온다.

63) 『전경』, 공사, 3장, 1절 참조

64) 『전경』, 공사, 2장, 25절

65) 『전경』에는 인류가 병겁을 겪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제님의 행록을 적은 다른 문헌에는 병겁의 원인에 대하여 나와 있다. 李重盛編, 『天地開闢經』(전주 : 용봉출판, 1992), p. 231에 “先天에 惡業諸祟가 釀作天下之病하야 爲怪疾하노라 春夏에 無病하야 春夏所祟가 入秋換節하야 發作病勢하나니 天地大運이 時乎大秋니라 天地一元이 當秋運하야 先天諸祟가 秋運之下에 大病이 大發하고 先天諸惡이 釀成天下之大亂하나니 大亂之下에 大病이 大發하야 襲于全世하면 避無其方하고 藥無可施하노라 (선천의 모든 악업과 원한이 천하의 병을 만들어내니 이것이 괴질이다. 봄과 여름에 병이 없다가 봄과 여름에 쌓인 독기가 가을로 들어가는 시기에 병으로 나타나듯이 천지대운이 가을운을 맞이하여 선천에 있었던 모든 악업과 원한이 가을운수에 큰 병과 큰 난리를 일으키니, 큰 난리와 큰 병이 세상에 밀어닥치면 피할 방법이 없고 사용할 약이 없게 된다”라고하여 병겁의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66) 『전경』, 예시, 41절

바둑에서 한수만 높으면 이기나니라. 남이 모르는 공부를 깊이 많이 하여두라. 이제 비록 장량(張良)·제갈(諸葛)이 쏟아져 나올지라도 어느 틈에 끼어 있었는지 모르리라. 선천개벽 이후부터 수한(水旱)과 난리의 겁재가 번갈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진탕하여 왔으나 아직 병겁은 크게 없었나니 앞으로는 병겁이 온 세상을 뒤덮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낼 방법이 없으리니 모든 기이한 법과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의통을 잘 알아 두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 봄으로부터 이 동토에서 다른 겁재는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남았으니 몸 돌이킬 여가가 없이 홍수가 밀려 오듯 하리라⁶⁷⁾

의통(醫統)은 도통(道通)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 근거는 병세문(病勢文)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병세문에서 상제께서는 ‘도를 얻게 되면 큰 병도 작은 병도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낫게 된다(得其有道 則大病勿藥自效 小病勿藥自效)’라고 하시고 그 다음 다음 줄에 ‘의통(醫統)’이라고 기록하였다. 여기서 ‘득기유도(得其有道)’는 도통과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

둘째, ‘대인대의무병(大仁大義無病)’이라는 표현이다. 상제께서 전주 이치안의 집에서 ‘고견원려왈지(高見遠慮曰智)’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쓰셨는데, 그 내용중에 대인대의(大仁大義)에 대하여 밝힌 구절이 있다.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 不測變化之術 都在於神明 感通神明然後 事其事則謂之大仁大義也⁶⁸⁾

여기서 대인대의(大仁大義)는 신봉어인(神封於人)의 신인조화가 이루어진 도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의통을 도통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상제께서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⁶⁹⁾라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의통이라는 남이 모르는 공부는 바로 도주님과 도전님을 통하여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결국 후천선경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병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제님으로부터 도주님과 도전님의 연원을 통한 대순진리를 믿고 수도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67) 『전경』, 공사, 1장, 36절

68) 『전경』, 제생, 43절 ; 사람은 양이고 신은 음이다. 음양이 상합한 연후에 변화의 도가 있다. 신묘한 변화의 도술은 신명에게 있다. 그 신명을 감통한 연후에 모든 일을 임의로 할 수 있으니, 이를 일컬어 대인대의라 한다.

69) 『전경』, 교운, 1장, 41절

될 것이다.

(2) 개벽과 원시반본

개벽(開闢)이란 용어는 사전적으로는 ‘천지(天地)가 처음으로 생긴 것’을 의미하나 상제께서는 개벽을 단순히 하늘과 땅이 열리는 천개지벽(天開地闢)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개벽이니라⁷⁰⁾

라고 정의를 하였다. 그리고 천·지·인 삼계를 개벽해야 하는 당위성을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쓰려면 쓸 때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엎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벽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⁷¹⁾

즉 선천의 상극도수에 지배되어 멧히고 쌓인 원한이 삼계에 가득차 진멸 지경에 처한 선천의 세상을 상제께서는 낡은 집에 비유를 하시고 이러한 낡은 집을 뜯어 고치는 일을 상제께서는 ‘개벽’이라고 하였다. 이 개벽은 선천에서 운행되어온 우주의 법도가 아닌 보다 광범위하고 차원이 틀린 도법(道法)으로서 다스려지는 것이다⁷²⁾. 이러한 도법은 이전의 선천에서는 존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오직 상제의 권능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70) 『전경』, 예시, 30절

71) 『전경』, 공사, 1장, 2절

72) 후천의 법도가 선천의 법도보다 광범위하고 차원이 다른 것은 “선천에서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가지 도(道)만을 따로 써서 난국을 능히 바로 잡을 수 있었으나 후천에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도법을 합(合)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 잡지 못하리라(『전경』, 예시, 13절)”는 상제님의 말씀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과악된다.

그런데 삼계(三界)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선운(仙運)을 여는 개혁에는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가 수반되니, 그것이 바로 원시반본(原始返本)이다. 선천의 잘못된 도수를 뜯어고쳐 새로운 후천의 운(運)을 여는 개혁(開闢)과 우주의 처음인 원시(原始)의 상태로 반본(返本)한다는 원시반본(原始返本)은 어떻게 보면 상반된 개념처럼 보인다. 그러나 후천개혁은 반드시 원시반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삼계공사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제께서는 선천의 막바지에 천·지·인 삼계가 진멸지경에 처한 상황을 만고로부터 쌓이고 맺힌 원한으로 인하여 천지의 상도(常道)가 어긋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렇다면 선천이 시작하는 원시(原始)의 상태에서는 그 운행적인 면에서 일체의 원한이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상도(常道)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가장 이상적인 세상이라는 가정이 성립한다. 상제께서 삼계공사를 행하심으로써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된 세상은 모든 원한이 해결되고 상도(常道)가 바로 잡힌 세상이 된다. 그 세상은 원시로 반본된 상태로 볼 수 있다.

원시(原始)의 선천세계에서는 모든 원한이 아직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세상이 상도(常道)에 의해 조화롭게 다스려지는 세상이다. 그 때에는 신성(神聖)이 입극하여 성(聖)과 응(雄)이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통제관장하였다. 이제 상제께서 개혁공사를 보심으로써 세상은 다시 원시반본이 되어 그때처럼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가 되는 것이다⁷³⁾. 그리고 원시반본이 됨으로써 원시의 선천세계에 있었던 처음 혈통줄로 인류의 계보도 바로 잡히게 되니⁷⁴⁾, 선천의 최초 성(姓)인 강씨 성으로 상제께서 강세하시게 되었던 것이다.⁷⁵⁾

73) 『전경』, 교법, 3장, 26절

74) 『전경』, 교법, 3장, 42절에 “원시반본하는 때라 혈통줄이 바로잡혀 환부역조와 환골하는 자는 다죽으리라”라는 표현이 있다.

75) 『전경』, 행록, 4장, 17절에 상제께서 강(姜)씨 성으로 강세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이 세상에 성으로는 풍(風)성이 먼저 있었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풍채(風采)·풍신(風身)·풍골(風骨) 등으로 몸의 생김새의 칭호만으로 남아올 뿐이

그러나 상제께서 행하신 삼계공사를 통하여 원시반본된 세상은 원시(原始)의 선천세계와 표면적으로는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한 가지가 있다. 원시의 선천세계는 원한이 아직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천지가 상도(常道)에 의해 조화롭게 운행하는 이상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지만, 우주의 운행 원리인 도수적인 면에서 상극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개혁되어 원시반본된 세상은 이런 상극적인 요소가 극복된 완전무결한 세상이다. 비록 완전해 보이던 원시의 선천세계는 그 상극의 도수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원한이 발생하여 진멸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새롭게 개혁되는 후천의 세계는 그것이 극복되어 오만년 동안 상서가 무르녹는 청화세계(淸華世界)가 이룩되는 것이다. 그러한 후천세계를 상제께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⁷⁶⁾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⁷⁷⁾

오. 그 다음은 강(姜)성이 나왔으니 곧 성의 원시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개혁시대를 당하여 원시반본이 되므로 강(姜)성이 일을 맡게 되었나니라”라고 설명하고 있다.

76) 『전경』, 예시, 80절

77) 『전경』, 예시, 81절

Ⅲ. 宗旨의 思想的 意義

1. 연원적 진리체계

1) 연원(淵源)과 종통(宗統)

대순진리가 다른 종교사상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연원과 종통이라는 독특한 신앙과 진리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러 기성 종교에서도 종교적 정통성의 계승이라는 신앙적 전통⁷⁸⁾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사승관계(師承關係)로 이어지는 교리 및 지휘권의 전수관계이지 그 자체가 그 종교교리의 근원이 되거나 신앙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대순진리에서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으로 이어지는 종통계승의 관계는 그것이 단순한 종교적 정통성의 계승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대순진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종통 자체가 대순진리라는 진리체계의 연원(淵源)이 되고 있다. 대순진리 자체가 구천상제님 한 분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써 종통을 계승하신 도주님과 유명에 의해 종통을 계승하신 도전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 그리고 상제님과 도주님 그리고 도전님과 관계는 어떤 사승관계(師承關係)가 아니며, 세 분 모두가 대순진리라는 진리체계의 주체가 되며 신앙의 대상이 된다⁷⁹⁾.

천지신명의 호소에 의하여 진멸지경에 이른 선천세상을 광구하고자 강세하신 구천상제께서는 선천우주의 운행도수 자체가 상극의 원리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이 생기고 그 원한으로 천지는 상도(常道)를 잃어 세상은 참혹하게 변했다고 진단하였다. 선천세상의 참혹상이 선천우주의 운행질서

78) 불교에서는 석가의 정통이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가섭에게 전해져 그것이 달마를 거쳐 오늘날의 선종(禪宗)을 이루었다고 하고, 유교에서는 공자의 가르침의 정통성이 안연, 증자, 자사, 맹자를 거쳐 천년동안 도통의 맥이 끊어졌다가 송대에 이르러 정명도, 정이천을 거쳐 주자에 이르러 성리학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여러 종교에서 각기 창시자의 종교적 정통성을 누가 어떻게 계승하였는가가 중요한 교리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79) 대순진리회의 도헌(道憲)에서는 구천상제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도주님을 창도주(創道主)로 구분하여 명기하고 있으나(『道憲』, 제 2조 3조), 넓은 의미에서는 구천상제님, 도주님, 도전님을 모두 대순진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체에 문제가 있어 발생했기 때문에 선천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원리(道를 지칭함)로도 이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제께서는 선천의 모든 도(道)와는 차원이 다른 전혀 새로운 도를 열으신 것이다.

그것은 1901년 상제께서 대원사에서 49일간 불음불식 공부를 하시고 ‘마침내 칠월 오일에 오룡허풍(五龍嘘風)에 천지대도(天地大道)를 열으셨다’⁸⁰⁾라는 내용과 도주께서 우리 도(道)를 지금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옛 적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금불문 고불문지도야(今不聞古不聞之道也)’라고 말씀하신 데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선천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금불문 고불문(今不聞古不聞)의 도(道)를 상제께서는 새롭게 열으셨지만, 이를 믿고 닦을 수 있도록 창도(創道) 하시고 그 법(法)을 설정하신 분이 바로 도주님이다. 그와 같은 사실을 도헌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第二條 本會의 創道主는 趙鼎山聖師이시다.

第三條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四綱領 — 安心·安身·敬天·修道 — 과 三要諦 — 誠·敬·信 — 를 要綱으로 하고 說法하신 趙鼎山道主의 遺命을 繼承하여 修道함을 使命으로 한다.

도주님의 유명에 의하여 종통을 계승하신 도전님께서 천·지·인 삼계(三界)를 광구하고자 하신 상제님의 유지(遺志)와 도주님의 유법(遺法)을 직접 실행하여 세상에 펼치시는 분이다. 대순진리는 상제님과 도주님에 이어 도전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리체계가 확립되고 신앙체계가 완성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宗旨(宗旨)와 대순진리(大巡眞理)

선천의 잘못된 상극도수를 뜯어고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 어 진멸지경에 처한 천·지·인 삼계(三界)를 개혁하여 후천선경을 건설하는 공사는 상제님 한 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은 『전경』의 여러 구절에서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1894년 오월 어느 날 밤 상제께서 주무시고 계시던 중에 한 노인이 꿈에

80) 『전경』, 행록, 2장, 12절 참조

나타나 “나도 후천진인이라. 천지현기와 세계대세를 비밀히 의논할 일이 있노라”라고 아뢴 일이 있었다는 기록⁸¹⁾에서 상제님과 어떤 사안(事案)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진인(眞人)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 …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말아 행하리오”⁸²⁾라고 하신 상제님의 말씀에서도 천지공사를 상제님 한 분만이 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바로 그 진인(眞人)에 대하여 상제께서는 여러 차례의 암시적 방법으로 계시를 하였다⁸³⁾. 그리고 화천하시기 전에 누이동생인 선들부인에게 봉서를 맡기시어 도주께서 봉서를 받으시는 것을 상제님의 모친, 따님, 그리고 그 당시의 대표적 종도의 한사람인 이치복으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여⁸⁴⁾ 세상에 도주님의 종통계승을 널리 입증하였던 것이다.

도주님의 유명에 의하여 도전님이 종통을 계승한 것은 암시와 계시의 차원이 아닌 그 당시의 최고간부 전원이 시립한 가운데 행해진 공식적인 것이었다. 그 상황을 『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도주께서 이튿날 미시에 간부전원을 문밖에 시립케 한후 도전 박한경을 가까이 하고 도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도의 운영 전반을 맡도록 분부를 내리고 「오십년 공부 종필(五十年工夫終畢)이며 지기 금지 사월래(至氣今至四月來)가 금년이다. 나는 간다. 내가 없다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행하여 오던대로 잘 행해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⁸⁵⁾

81) 『전경』, 행록, 1장, 22절

82) 『전경』, 교운, 1장, 41절

83) 상제께서 도주님에 대하여 암시하신 것은 여러 문헌에서 나타난다. 1903년에 김보경의 집에서 진인의 나이가 9세임을 알아보셨으며(태극도교화부, 『선도진경』, 동아대학교출판사, 1967, p. 152), 1909년 4월 28일 도주께서 만주로 봉천명하실 때에 상제께서는 종도들을 이끌고 도주님에 대한 공사를 보시었다(상계서, p. 181) 그 외에 1903년에 김형렬에게 신명계의 주벽(主壁)인 분이 이미 이세상에 내려왔는데 그의 나이는 초립동년이라고 말씀하셨으며(이중성, 『천지개벽경』, 전계서, pp. 114 ~ 115), 1907년에 상제께서 “나의 덕을 펼 사람은 지금 초립동이이다”라고 하시면서 박공우에게 “비록 나이가 어리더라도 위치와 덕이 너보다 높다면 만났을 적에 반드시 공경하라. 때가 와서 그 한사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들이라도 감히 내 곁에 오지 못한다”라고 하시고(상계서, p. 365) 1909년에는 종도들에게 “한 사람이 봉천명 봉신교하여 보은천지하리라”(상계서, p. 538)라고 하시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도주님에 대하여 암시하셨다.

84) 『전경』, 교운, 2장, 13절 참조

85) 『전경』, 교운, 2장, 66절

게시에 의하여 구천상제님의 종통을 도주께서 계승하시고, 유명에 의해서 도전님이 종통을 계승하신 것은 단순한 계승의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천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진리자체이다. 천여년 전에 진표율사가 용추(용소)를 솟으로 메우고 솔을 올려 놓은 위에 미륵불을 봉안하여 도의 근원을 밝혀 놓은 것에서도 그 천부성(天賦性)을 엿볼 수가 있다. 이러한 천부적인 종통을 바탕으로하여 상제님에서 도주님과 도전님으로 이어지는 진리체계 자체를 대순진리라고 정의내릴 수 있으며, 그 대순진리는 구체적으로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종지로서 표현되는 것이다.

상제께서 행하신 삼계공사에 대하여 상제님을 따르던 종도들이 이해한 것이 대순진리가 될 수는 없으며, 어느 종교학자가 해석한 것이 또한 대순진리가 될 수는 없다. 삼계공사의 내용은 오로지 도주님과 도전님에 의해서만 밝혀질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대순진리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이다⁸⁶⁾.

도주께서는 1925년에 구태인 도창현에 도장을 이룩하여 무극도를 창도하시고 상제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고 종지(宗旨) 및 신조(信條)와 목적(目的)을 정하였다⁸⁷⁾. 바로 도주께서 종지로서 밝힌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이 상제께서 행하신 삼계공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주께서 밝히신 상제님의 삼계공사의 큰 뜻⁸⁸⁾은 도전님에게로 유지 계승되어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종지는 글자 그대로 대순진리라고 정의되고 있다.

오직 우리 대순진리회는 성·경·신 삼범언으로 수도의 요체를 삼고 안심·안신 이율령으로 수행의 훈전을 삼아 삼강오륜을 근본으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국법을 준수하여 사회도덕을 준행하고 무자기를 근본으로하여 인간 본래의 청정한 본질로 환원토록 수심연성하고 세기연질

86) 물론 도주님과 도전님은 상제님의 삼계공사에 대하여 그것을 올바르게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서 상제님과 같이 삼계공사의 내용인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을 실행하고 완성하는 분으로서 이해를 해야 한다.

87) 『전경』, 교운, 2장, 32절

88) 『도헌』제 13조에 ‘淵源은 姜甌山上帝의 大巡하신 遺意의 宗統을 繼承한 趙鼎山道主의 淵源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제의 대순하신 유의(遺意)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종지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여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면이수지하고 ...89)

『대순진리회요람』의 취지(趣旨)에 나와 있는 위의 기록에서 보이듯이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종지는 대순진리 자체로서 정의되어 있다. 이것으로 볼 때, 대순진리의 종지는 그것이 상제께서 행하신 삼계공사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제님으로부터 도주님, 그리고 도전님에게로 이어지는 종통의 주요한 테마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2. 실천적 수행체계

신성·불·보살이 신명과 인간계의 겁액을 구천에 호소함에 따라 상제께서는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하다가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불에 이르러 삼십년을 지내다가 최제우에게 제세대도를 계시하였다. 그러나 최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현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1864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1871년에 인간계에 강세한 것이다⁸⁹⁾.

이처럼 상제께서 병든 선천세상을 광구하고자 하신 그 대도(大道)의 참 뜻은 상제님으로부터 천명과 신교를 직접 계시받은 최제우도 능히 올바르게 밝힐 수 없었다. 상제께서 행하신 39년간의 인계사(人界事)도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으니⁹¹⁾, 이는 일반사람들은 상제님의 공사에 대하여 폭을 잡기가 어렵다는 상제님의 말씀⁹²⁾을 생각하게 한다.

대인(大人)의 일은 대인(大人)만이 그 폭을 잡을 수 있다. 진멸지경에 처한 천·지·인 삼계를 건지시려는 상제님의 천지공사의 내용은 오로지 도주님만이 그 대의(大義)를 우리들에게 밝힐 수 있었으니, 그것이 '음양합덕·신인

89)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1969, p. 9

90) 『전경』, 교운, 1장, 9절 참조

91) 『전경』에 많은 사람들이 상제님의 공사를 이해못하고 오히려 광인(狂人)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보인다(『전경』, 행록, 3장, 34절 참조)

92) 상제께서 공사하신 일을 어떤 사람이 「증산(甞山)께서 하는 일은 참으로 폭잡을 수 없다」 말하거늘 상제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대인의 일은 마땅히 폭을 잡기 어려워야 하나니 만일 폭을 잡힌다면 어찌 범상함을 면하리오」 하셨도다. (『전경』, 교법, 2장, 41절)

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종지(宗旨)이다.

본고(本稿)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종지는 상제께서 삼계를 광구하고자 하신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리킨다. 그리고 종지(宗旨)의 대상은 천(天), 지(地), 인(人)을 포함한 우주 삼라만상 전체이다. 이토록 광대한 범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삼계공사의 의미에 대해서 어찌 인간이 폭을 잡을 수 있겠는가. 신명도 그 대강(大綱)을 짐작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상제님으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은 최제우도 그 참 뜻을 밝히지 못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도주께서 상제님의 대도(大道)의 참 뜻을 종지로서 밝히셨을 뿐 아니라, 금불문 고불문(今不聞古不聞)의 대도(大道)를 인간들이 직접 믿고 닦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방까지 마련하였다. 이에 대한 의의(意義)를 도주께서는 직접 포유문(布諭文)으로써 표현하였다.

다행이 이 세상에 한량없는 대도가 있으니
 나의 심기를 바르게 하고
 나의 의리를 세우고,
 나의 심령을 구하여,
 상제의 임의에 맡기라.
 상제께서는 한없이 넓게 위에 계시고,
 도주님은 광대하게 명을 받드시니,
 도수는 밝고 밝아서 무사지공하다.
 인도하심이 아닌가!
 끝없는 극락 오만년의 깨끗하고 번성한 세계.
 (幸於此世 有無量之大道 正吾之心氣
 立吾之義理 求吾之心靈 任上帝之任意
 洋洋上帝在上 浩浩道主奉命 明明度數
 無私至公 引導乎 無量極樂五萬年
 清華之世)⁹³⁾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종지가 그 내용이 삼계를 광구하고자 행하신 상제님의 공사라고 하나, 삼계(三界)중에 인간에 국한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 아니 특히 대순진리를 믿고 수도하는 사람에게도 마찬

93) 『전경』, 교운, 2장, 41절
 『대순지침』, pp. 90 ~ 91

가지로 적용되는 원리임이 틀림없다. 즉 종지(宗旨)는 그 대상이 넓게는 천·지·인 삼계가 되지만 좁게는 도인들에게 국한될 수 있으며, 그럴때 종지는 구체적으로 사람이 현실적으로 수도하며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규정된다. 그러한 점은 『대순진리회요람』의 취지에서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다.

오직 우리 대순진리회는 성·경·신 삼법언으로 수도의 요체를 삼고 안심·안신 이율령으로 수행의 훈전을 삼아 삼강오륜을 근본으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국법을 준수하여 사회도덕을 준행하고 무차기를 근본으로하여 인간 본래의 청정한 본질로 환원토록 수심연성하고 세기연질하여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면이수지하고 성지우성하여 도즉아 아즉도의 경지를 정각하고 일단 활연 관통하면 삼계를 투명하고 삼라만상의 곡진 이해에 무소불능하나니 이것이 영통이며 도통인 것이다.⁹⁴⁾

바로 여기서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이 대순진리로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종지(宗旨)를 면이수지(勉而修之)하고 성지우성(誠之又誠)하여 수도를 하면 도가 곧 나오 내가 곧 도라는 경지를 정각하게 되고, 일단 활연관통하여 영통과 도통을 이룬다고 되어 있다. 즉 여기서는 종지의 내용이 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의 내용으로서 기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성을 들이고 수도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종지는 상제께서 진멸지경에 이른 선천세상을 광구하고자 행하신 삼계공사의 내용을 뜻하면서 그것이 도주님에 의해 밝혀져 도전님에게로 계승 실천되고 있다는 점에서 종통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대순진리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종지는 구체적으로 사람이 수도해나가는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3. 완성적 의의(意義)

대순진리회의 종지는 그 자체가 대순진리를 상징하고 있으며, 또한 구체적인 수도의 내용이 되기도 하지만, 그밖에도 완성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94)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p. 9

도 한다.

천·지·인 삼계가 완성을 이룬 상태가 바로 음양합덕과 신인조화에 의해 운행되는 세계이고 또한 진정으로 해원상생이 실천되는 세상이며, 도통진경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선천의 세상은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늘은 명천(明天)에서 노천(老天)으로 쇠해져 갔으며, 땅도 비옥한 상태에서 박토(薄土)로 변해갔다. 사람도 그 덕화가 쇠해져 세상에 원한이 쌓여 가고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게 된 것이다. 이에 상제께서는 구천대원조화주신으로서 삼계대권을 주재하시고 천하를 대순하다가 인간세상에 내려오셔서 상도(常道)를 잃은 선천의 도수를 정리하시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 지상천국을 건설하고 비겁에 쌓인 신명과 재겁에 빠진 세계창생을 널리 건지시려고 순회주유하시며 대공사를 행하였다. 그것이 바로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이라는 대도의 진리이다. 이러한 대도의 진리로써 신인의도(神人依導)의 이법(理法)으로 해원(解冤)을 위주로하여 천지공사를 보은(報恩)으로 종결하니 만고에 쌓였던 모든 원물이 풀리고 세계가 상극이 없는 도화낙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⁹⁵⁾.

이렇게 상극이 없는 도화낙원(道化樂園)의 후천세계가 바로 음양합덕과 신인조화, 해원상생 그리고 도통진경에 의해 운행되는 세상이다. 지금의 세상은 비록 상제께서 짜 놓으신 도수대로 후천선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세상이긴 하지만 아직은 대순진리회의 종지가 완전히 실현된 세상은 아니다. 지금은 종지의 완성을 위해 그것을 실천해나가는 때이다.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의 신조(信條)가 마련되어 종지가 완성된 상태를 목적(目的)으로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대순진리회요람』에서는 ‘교리개요(敎理概要)’라는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종지로하여 성·경·신의 삼법언으로 수도의 요체를 삼고, 안심·안신 이율령으로 수행의 훈전을삼아 윤리도덕을 숭상하고, 무자기를 근본으로하여 인간개조와 정

95)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p. 8 참조

신개벽으로 포덕천하·구제창생·보국안민·지상천국건설을 이룩한다⁹⁶⁾

선천의 우주가 불완전한 상극적 도수에 지배되어 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참혹하게 변하였다. 상제께서 잘못된 선천의 도수를 조정하고 신인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음으로써 이 세상은 개벽되어 선경이 건설되는 것이 바로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내용이라고 할 때, 천·지·인 삼계(三界)의 한 구성요소인 인간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우주가 불완전한 상극도수에 의해 지배되어 있다면, 인간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우주가 상도(常道)를 잃어 참혹하게 변했다면, 인간도 역시 상도(常道)를 잃고 윤리도덕이 끊어진 말세의 증후를 보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인간이 상도(常道)를 잃은 구체적인 상황을 상제께서는 “세상에 충효열이 없어져 천하가 모두 병들었다(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라고 진단하신 것이다.

그러나 삼계가 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에 따라 그 잘못된 도수가 조정되어 원한이 해소되고 지상선경으로 완성되듯이 인간도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법리에 따라 그 잘못된 속성이 바로 잡혀지고, 누적된 원과 한이 해원되어 인격적으로 완성을 이루는 인존시대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신의 삼요체(三要諦)와 안심·안신·경천·수도의 사강령(四綱領)을 믿음의 조건으로 삼아 종지로서 표현된 대순진리를 면이수지(勉而修之)하고 성지우성(誠之又誠)하였을 때 가능하다.

이러한 법방에 따라 수도함으로써 무자기를 근본으로 한 인간본래의 청정한 본질을 환원하였을 때, 도즉아 아즉도의 경지를 정각하게 되고 일단 활연관통하여 삼계를 투명하고 삼라만상의 곡진이해에 무소불능하게 된다. 바로 이 상태가 진정으로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이 이루어진 완성의 상태이다. 인류 모두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포덕천하요 구제창생이다. 그리고 인류를 포함한 모든 창생 뿐 아니라 천·지·인 삼계(三界)가 모두 그렇게 완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대순진리가 목적하는 세계개벽이요 지상천국건설인 것이다.

96) 상계서, p. 14

IV. 結 論

본고(本稿)에서는 대순진리회의 종지가 지니고 있는 개념(概念)과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사상적 의의(意義)를 살펴 보았다.

대순진리회가 선천의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은 선천의 종교가 단순하게 인간을 대상으로 올바른 진리를 깨닫도록 하거나 구원토록 하는 ‘교민화민(敎民化民)’하는 차원의 종교라고 할 때, 대순진리회는 그 대상이 인간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천·지·인 삼계(三界)에까지 확대되어 세상이 진멸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차원의 종교라는 점이다. 그렇게 진멸지경에 이르른 선천세상을 상서가 무르녹는 후천선경으로 완성하는 대순진리의 내용이 바로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으로 표현되는 종지(宗旨)이다.

이렇게 대순진리는 선천종교에서 보이는 교리와는 근본적으로 차별성을 갖는 진리 또는 가르침이므로, 그러한 대순진리의 독창성을 올바르게 파악하였을 때, 그에 맞는 올바른 수도를 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순진리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같이 동참할 수가 있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대순진리회의 취지에서 ‘대순하신 유지(遺志)를 계승하여 오십년 공부 종필로써 전하신 조정산(趙鼎山) 도주의 유법(遺法)을 승신하여 귀의할 바를 삼고자 대순진리회를 창설한 것이다’라고 언급된 것처럼, 대순진리를 수도하여 원하는 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제님의 대순하신 유지(遺志)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 그에 따른 도주님의 유법(遺法)을 올바르게 세워 그에 따른 수도를 행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본고(本稿)에서는 다만 상제님의 유지(遺志)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종지(宗旨)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개괄해 보았을 뿐이다.

그러나 비록 대략적이거나 대순진리회의 종지(宗旨)에 관하여 사상적으로 그 뼈대를 세워 봄으로써 그에 따른 도주님의 유법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며, 결국 우리 모두 원하는 바 도통진경(道通眞境)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참고문헌】

- 大巡眞理會敎務部, 『典經』, 大巡眞理會出版部, 1989
-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 『채지가』, 대순진리회교무부, 1978
- 『大巡眞理會要覽』, 대순진리회교무부, 1969
- 태극도교화부, 『선도진경』, 동아대학교출판사, 1967
- 李重盛編, 『天地開闢經』, 전주 : 용봉출판, 1992
- 安鐘沄, 「醫統에 관한 研究」, 『大巡思想論叢 제2집』, 대순사상학술원, 1997
- 李祥昊, 『大巡典經』, 김제 : 증산교본부, 1929
- 李正立, 『大巡哲學』, 증산교본부교화부, 1984
- 洪凡草, 『汎甌山敎史』, 서울 : 도서출판 한누리, 1988
- 林紹周(明), 『天機大要』, 서울 : 명문당, 1995
- 『周易』
- 周敦頤, 『太極圖說』
- 『大漢和辭典』
- 戴源長編, 『仙學辭典』, 臺北 : 眞善美出版社
- 金勝東編, 『道教思想辭典』, 부산대학교출판부, 1996